

# 개인특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글로벌역량의 매개변수를 중심으로-

이루리\*, 이소영\*\*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정보경영학과 박사과정\*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정보경영학과 교수\*\*

## Study on the Influence of Personal Traits to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Globalization Capability -

Ru-Ri Lee\*, So-Young Lee\*\*

Doctoral Course, Department of Information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Professor, Department Of Information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창업에서 글로벌역량과 개인특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전국 성인 남녀 21세이상 257명을 대상으로 설문 서베이를 실시했다. 연구결과 개인특성으로 성취욕구, 위험감수성, 자기효능감이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역량을 매개변수로 한 창업의지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각각의 개인특성이 통제된 상황에서 글로벌역량은 창업의지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 글로벌역량의 매개적 역할은 개인특성과 창업의지를 매개해주며 높은 설명력을 보여 글로벌역량이 창업의지와 상당한 관련이 있음을 밝혀내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창업을 하고자하는 개인과 기존의 창업자뿐만 아니라 창업교육 담당자들에게 기초자료로서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주제어 : 개인특성, 성취욕구, 위험 감수성, 자기효능감, 창업의지, 글로벌역량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whether personal traits and globalization capability would affect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Survey using questionnaires was conducted toward 257 male and female adults aged 21 above across the nation. The analysis of the data shows that the desire for self-fulfillment, risk-taking propensity and sense of self-efficiency as personal traits have positive influence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the globalization capability as mediating variable has meaningful influence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that is, globalization capability under the control of respective personal trait makes positive influence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Current study would support the potential entrepreneur and the educator to create effective entrepreneurial education program.

**Key Words** : Personal Traits, need for a achievement, Risk-Taking Propensity, self-efficiency, Entrepreneurial Intention, Globalization Capability

Received 31 March 2016, Revised 25 April 2016  
Accepted 20 May 2016, Published 28 May 2016  
Corresponding Author: So-Young Lee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Email: claire@hoseo.edu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1. 서론

전국적으로 다시 벤처 열풍이 불면서 대학을 비롯해 여러 기관에서 창업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생을 비롯해서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장년의 재창업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에 대한 기초지식과 실무적인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창업사유를 보면 대부분 안정적인 수익을 통해서 생계유지 및 노후대비가 주된 동기이다. 현실적인 이유로 생업을 위해 창업을 준비한다는 것이다. 조직 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혁신 및 유연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조직구성원의 자발적인 행동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1]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창업자들이 대출이나 퇴직금 등을 통해서 창업을 할 자금을 마련하는 만큼, 창업을 시작하는 창업자들이 가능한 많은 정보 수집을 계획해야 성공률이 높아질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창업 요소들 중에서 물리적인 요소로 창업자금, 사무실, 장비보다 창업자의 내면적 요소 중에서 특히 개인적인 특성들이 창업의지를 얼마나 더 고취시키는지 알아보고 그에 한 단계 더 나아가 창업자의 글로벌역량이 창업의지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그 연구 목적이 있다.

창업자간 개인특성이 창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와 연구는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2]. 창업을 할 때 물리적인 요소도 물론 중요하지만 창업자 개인의 특성이 물리적 부분 못지않게 중요하고 때로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다[3].

현대사회는 IT를 기반으로 움직이고 그 안에서는 글로벌 환경이 구축된 만큼 그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글로벌역량이 과거에는 외국어 정도에 그쳤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다양한 문화적 이해와 더불어서 유연하고 보다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비롯해서 보다 더 다양한 관점과 태도들이 글로벌역량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시대의 창업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개인적 역량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글로벌 역량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밝혀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가 창업의지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창업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및 가설

### 2.1 창업의지(Entrepreneurial Intention)

창업의지는 미래에 스스로 창업할 가능성에 관한 자신의 평가를 말한다. 즉, 어느 하나의 조직을 출현 시키는 데 있어서 개인에 의해 수행되는 과정으로서, 존재 그 자체라기보다는 존재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적인 측면에서 창업을 바라보면 창업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일어나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창업의지(Entrepreneurship intention)는 기업설립과 관련한 첫 번째 단계로 본다.

Veciana, Alponeand Urbano(2005)는 창업의지는 새롭게 탄생하는 조직설립을 위한 토대기반 이므로 이러한 창업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기본개념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4]. 강성일(2007)의 연구에서는 창업자의 창업의지가 없으면 기업의 설립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고, 따라서 창업이라는 행위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즉, 창업의지를 창업의 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밖에도 창업의지의 중요성의 역할한 문헌을 많이 찾아 볼 수 있는데, Shapero(1981)는 한 국가나 지역의 경제가 침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회복력(Resilience)과 자신의 쇄신적(Self renewing) 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예비 창업가들의 창업의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2].

같은 맥락으로 이지우(1999)는 개인적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창업가적인 기질을 발휘하여 창업과 관련된 행동을 주도하는 잠재적인 창업자들이 존재할 때에 지역과 조직 그리고 집단 등이 탄력성을 갖추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5]. 또한 Krueger & Carsrud (1993)는 창업의지는 새롭게 설립될 기업의 특성을 결정 짓는 핵심역할을 하기 때문에 창업과정의 첫 번째 단계인 창업의지는 창업과 관련된 모든 전반적 현상을 설명하는데 매우 필수적이라고 했다[6].

따라서 창업의지는 창업에 관한 이론적인 문헌과 실증연구에서 자주 다루지는 주된 주제로 등장하고 있으며, 창업의지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통해 창업의지는 개인적 특성과 관계가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2 개인특성(Personal Traits)

이미자, 김중규(2013)의 연구에 의하면 창업을 하기위해서는 최우선 창업자의 역량이 요구된다. 본인이 잘 알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자신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기에 적합한 새로운 유망 아이템을 찾아 이를 차별화 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가지고 창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7].

송성재(2014)는 직업성격 유형 중 창업의지에 가장 영향력이 높은 유형을 나열하면, 탐구보다는 관습적 유형이, 관습보다는 현실적 유형이 조금 더 창업의지가 높다고 밝히고 있다[8]. 김동진·엄태성·변광인(2009)는 그들의 초기 연구에서는 창업의도를 결정짓는 창업가의 3가지 요인을 개인특성, 심리특성, 환경적으로 구분 하였으나, 이러한 요인들에서 동기부여에서 기술력, 비전과 목표, 창업교육 등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9].

본 연구에서는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여러 선행 논문 중에서도 창업의지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이지우(2000), 윤방섭(2004)이 채택한 성취욕구, 위험감수성, 자기효능감을 선정했다[6, 10].

신동하(2010)는 성취욕구가 높은 창업자들은 성공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게 된다고 말했다[11]. 성취욕구가 크면 클수록 더 열정적으로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임한 다는 것이다.

위험감수성(Risk-Taking Propensity)이란 불확실성이 존재 하는 사업의 의사결정에서 위험 선호적 의사결정을 도입하고, 급격한 환경변화를 선호하거나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성향을 말한다.

Smith & Miner(1984)는 역동적인 성장을 지향하는 창업자들이 완만한 성장을 지향하는 창업자보다 위험감수적성향이 더 강하다고 주장했다[12]. 위험감수적인 성향이 높은 창업자는 급변하는 사업 환경에서 의사결정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특정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기대와 신념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자기효능감을 만들어내는 기반으로는 첫째,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 나 자신이 무언가를 달성하거나 성공한 경험 달성 체험. 둘째, 나 이외의 다른 사람이 무언가를 달성하고 성공하는 행위를 관찰하는 대리 경험. 셋째, 언어적인 격려, 본인의 능력에 대한 설명을 듣는 언어적

설득. 넷째, 술 등의 약물 및 기타 요인으로 인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동기부여 하는 생리적 정서적 고양 등을 들 수 있다[13].

Krueger & Netal(1974)은 창업에 대한 자기의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상황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다양한 도전과 여러 가지 위험에 능숙하게 대처·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환경 안에서 기회를 찾아 활용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므로 창업의지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14].

이러한 기존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했다.

- H1: 성취욕구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정(+)의 영향은 글로벌역량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 H2: 위험감수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정(+)의 영향은 글로벌역량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 H3: 자기효능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정(+)의 영향은 글로벌역량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 2.3 글로벌역량(Globalization Capability)

글로벌역량 이라 함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하여 깊은 이해를 지니는 것으로써 그러한 세계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문화, 종교, 경제 등의 활동에 있어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유연한 시각을 견지하는 능력으로 정의되기도 한다.(Mansilla & Jackson, 2011)[15].

중소기업청이 실시한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2002)에서는 한국벤처기업들이 창업초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 또한 대기업은 조직내부에 전문 인력의 채용이나, 유명한 글로벌 전문가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17]. 반면에 실제로 대덕밸리 벤처와 수도권지역의 총 200개사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해외진출을 수행하는 100개사의 기업은 50%에 불과하였으며, 이에 약 70%가 단순수출이 포함된 해외진출을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태생적 글로벌 벤처(BGV: Born Global Venture)는 약 20%정도에 지나지 않음을 보였고, 국내 벤처기업에서 해외진출이라는 새롭고 넓은 시장의 기회 속에서 지속적 기업으로서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데 유리하게 작용

할 수 있다[18].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글로벌역량은 기업과 경영환경대응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발견할 수 있다.

기업에서는 나날이 변해가는 경영환경의 변화와 증가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유용한 정보를 갖춘 인재양성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글로벌화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가져야 하는 능력과 성향, 잠재능력인 ‘글로벌역량’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19].

Caligiur & Santo(2001)는 세계적인 비즈니스 구조에 개인 지식역량을 향상시키고, 국제적인 비즈니스 쟁점에 대한 개인의 지식을 증대시키는 것, 그리고 전 세계를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증대하는 것이 지식이라 정의했다[20]. 박소연·송영수(2008)의 연구에서도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모델을 3가지 차원인 지식, 기술, 태도로써 제안하였는데, 지식은 글로벌화의 이해, 글로벌 경제 이해, 다른 문화 이해의 3가지 역량이며, 기술은 해외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매너 및 에티켓, 외국어, IT 활용 등 5가지 역량, 태도는 자국문화 이해, 이미지 메이킹, 개방성과 유연성, 정직과 열정 등의 역량을 제시했다[21].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적 특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정의 영향관계에 글로벌역량이 매개적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

### 3. 연구 설계 및 방법

####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글로벌시대에 개인특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관계와 이 관계에 있어 글로벌 역량의 역할을 보고자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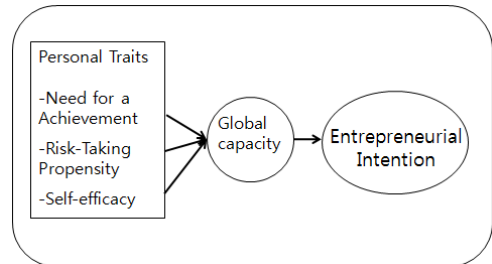
글로벌역량은 세계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과 몰입을 갖는 호기심(Gupta & Govindarajan, 2002)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를 사회에 국한시켜 바라보지 않고 통합적, 거시적으로 관점으로 조망하는 세계적 전략적 사고(이효미, 외 다수, 2008)이다.

새로운 경험 자체를 즐기며 빠르게 학습하는 적응성(이효미 등, 2008)이 세계 공동체의 이익을 훨씬 더 고려하는 것으로 관련된 사고방식이 세계 중심주의 관계유지로 구성되어 있다. 독립변수인 개인특성은 창업자가 선천적 능력 또는 후천적 노력으로 가지게 되는 역량으

로 크게 3가지의 구성요소로 성취욕구, 위험감수성, 자기효능감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속변수인 창업의지는 실질적인 창업의 여부가 아니라 다가 올 미래에 자기 스스로 창업할 가능성에 관한 자신의 평가이다.

요약하면, 개인적인 특성이 창업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영향관계에 있어 글로벌역량이 매개적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라 예측한다. 아래 [Fig. 1]에 본 연구의 개략적인 모형을 제시하였다.



[Fig. 1] Research Model

#### 3.2 측정도구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매개변수인 글로벌역량으로써는 세계화의 호기심, 세계적인 전략적 사고, 세계중심주의, 이문화 적응성, 외국인과의 관계유지 등으로 조작적 정의를 내렸으며, 개인적 특성은 윤방섭(2004)연구에서 검증된 결과를 기초로 성취욕구, 위험감수성, 자기효능감 항목을 채택 하였으며 종속변수인 창업의지는 송성재(2013)에서 검증된 창업계획과 창업아이템, 그리고 창업자금등으로 구성했다[10,9].

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는 리커트(Likert) 5점 척도로써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했다.

#### 3.3 자료수집

본 연구는 전국의 성인남녀 26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법을 사용하여 표본을 선정했다. 실증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기간은 2014년10월17일에서 10월30일까지 (14일간) 진행이 되었으며 서베이를 통한조사를 진행했다. 이중에서 조사내용에 대한 체크가 없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한 3부를 제외한 257부만을 실제 분석 자료로 활용했다.

### 3.4 설문문의 구성

본 연구의 설문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글로벌역량에 관한 설문 6문항, 개인특성에 관한 설문 15문항, 창업의지에 관한 설문 5문항,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개인특성 7문항으로 총 3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4. 연구결과 논의

### 4.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의 결과로 연구대상의 사회학적 특성에서는 성별과 연령을 빈도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결과는 “여성”이 135명(52.5%)로 “남성” 122(47.5%)보다 많았고, 연령은 “31~40대” 121명(44.2%)이었고, “60대이상” 91명(33.2%), “40~49대” 95명(37.3%), “41~50대” 72명(28.2%), “51~60대” 51명(20%)순이다. 이를 30대 이후로 계산하면 총 257명중 225명(88.2%)로 연구대상자들은 높은 연령대로, 분석결과는 다음<Table 1>과 같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257)

Categories		Category	People	(%)
Demographic characteristics	Gender	Male	122	47.5
		Female	135	52.5
	age	21~30	30	11.8
		31~40	95	37.3
		41~50	72	28.2
		51~60	51	20
over 60~		7	2.7	

### 4.2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학력, 결혼유무, 창업교육이수, 최종진공, 마지막으로 창업경험이다. 학력은 “대졸” 103명(40.2%)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원이상” 59명(23%)과 “고졸” 49명(19.1%)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유무에서는 “기혼” 209명(82.3%)과 “미혼” 45명(17.7%)으로 나타났다.

창업교육 횟수는 “없음” 124명(48.8%)으로 가장 많았고, “1~2회” 57명(22.4%)이고, “3~4회” 31명(12.2%)순으로 나타났다. 전공은 “인문계열” 76명(33.3%)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경상계열” 66명(28.9%)이고 “공학계열” 53

명(23.2%)순으로 나타났다. 창업경험은 “없음” 150명(59.5%)이고, “있음” 102명(40.2%)보다 조금 많이 나타났고,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다음 <Table 2>와 같다.

<Table 2> Sample Characteristic (N=257)

Classification		N	%
Education	High school or less	9	3.5
	High School	49	19.1
	College	36	14.1
	University	103	40.2
	Graduate	59	23
Marital Status	Single	45	17.7
	Married	209	82.3
Number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1~2	57	22.4
	3~4	31	12.2
	5~6	18	7.1
	7~8	24	9.4
	nothing	124	48.8
Specialty	Engineering Department	53	23.2
	RP Series	66	28.9
	Humanities	76	33.3
	Arts and Physical Education	26	11.4
	Guitar	7	3.1
Founded experience	That	102	40.5
	None	150	59.5

### 4.3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증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 적재값이 기준치에 미달되는 문항을 제거한 후 <Table 3>과 같이 요인분석을 재 실시했다. 고유 값 1.0 이상으로 추출된 요인은 총 5 개로 구분되었다.

각각의 요인명은 선행연구와 같이 구성요인을 ‘창업의지’, ‘성취욕구’, ‘자기효능감’, ‘글로벌역량’, ‘위험감수성’으로 명명했다. 표본 적합도를 판단하는 KMO는 .880으로 나타났으며, 요인분석을 위한 측정항목간의 상관행렬에 대한 단위행렬여부를 검증하는 Bartlett의 구형성검정 결과  $X^2=1852.321$ 로  $df=153$ , 유의수준  $\alpha<0.05$ 에서  $p=0.000$ 으로 수집된 데이터와 측정항목은 요인분석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 4.3.1 신뢰성 분석

신뢰성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Chronbach's  $\alpha$  (Alpha) 계수를 이용하였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 <Table 3>과 같다.

<Table 3> Results of Feasibility & Reliability Test (N=257)

V	M	Factor					Chronbach's α
		1	2	3	4	5	
1	1	.808					0.865
	2	.788					
	3	.783					
	4	.774					
	5	.599					
2	1	.185	.773				0.760
	2	.284	.763				
	3	.220	.718				
	4	.088	.686				
3	1	.170	.149	.754			0.824
	2	.070	.463	.708			
	3	.228	.125	.674			
	4	.240	.139	.501			
4	1	.082	.108	.140	.834		0.714
	2	.218	.285	-.020	.667		
	3	.173	.149	.281	.631		
5	1	.135	.024	.065	.204	.817	0.657
	2	.138	.235	.249	.040	.763	
Eigen Value		6.828	1.658	1.389	1.180	1.080	
cumulative(%)							

KMO = .880, X<sup>2</sup> = 1852.321 df=153, p=.000 Factor extraction method:Principal component, Rotation Method : Varimax a. 5 Factors rotate iteration

4.4 가설검증

가설1 “성취욕구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정(+)의 영향은 글로벌역량에 의해 매개 될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매개효과 검증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음의 절차에 따라 분석을 실시했다.

1. 독립변수 성취 욕구는 매개변수인 글로벌역량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2. 독립변수 성취 욕구는 종속변수인 창업의지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3. 독립변수 성취욕구가 통제된 상황에서 매개변수인 글로벌역량은 종속변수인 창업의지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4. 독립변수인 성취욕구의 직접효과는 총 효과보다 유의적으로 작은가?

분석의 결과는 다음의 <Table 4>에 제시하였다.

<Table 4> Mediation effect of global capac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sire for achievement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model	No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B	Stand&error	B			
step 1	.621	.061	.537		10.195	.000
achievement	F=103.941 R <sup>2</sup> (adjR <sup>2</sup> )=.290 (.287)					
step 2	.575	.074	.438		7.783	.000
achievement	F=60.574 R <sup>2</sup> (adjR <sup>2</sup> )=.192 (.189)					
step 3	.395	.085	.301		4.628	.000
achievement	.291	.074	.255		3.931	.000
global	F=39.729 R <sup>2</sup> (adjR <sup>2</sup> )=.238 (.232)					

분석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다.

1. 독립변수 성취 욕구는 매개변수인 글로벌역량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B=.621, t=10.195, p=.000).
2. 독립변수 성취 욕구는 종속변수인 창업의지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B=.575 t=7.783, p=.000).
3. 독립변수 성취욕구가 통제된 상황에서 매개변수인 글로벌역량은 종속변수인 창업의지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B=.291 t=3.931, p=.000).
4. 독립변수인 성취욕구의 직접효과는 총 효과보다 유의적으로 작다. 즉 2단계의 표준화된 B값 (.438)이 3단계의 독립변수의 B값 (.301)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이 모든 결과는 가설1을 지지하고 있다.

가설2 “위험감수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정(+)의 영향은 글로벌역량에 의해 매개 될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매개효과 검증 회귀 분석을 실시했다. 글로벌 역량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의 절차에 따라 분석을 실시했다.

1. 독립변수 위험감수성은 매개변수인 글로벌역량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2. 독립변수 위험감수성은 종속변수인 창업의지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3. 독립변수 위험감수성이 통제된 상황에서 매개변수인 글로벌역량은 종속변수인 창업의지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4. 독립변수인 위험감수성의 직접효과는 총 효과보다 유의적으로 작은가?

분석의 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였으며 다음과 같다.

<Table 5> Mediation effect of global capac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isk propensit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model	No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B	Stand&error	B		
step 1	.402	.056	.412	7.216	.000
risk-global	F=52.075 R <sup>2</sup> (adjR <sup>2</sup> )=.290 (.287)				
step 2	.451	.064	.406	7.088	.000
risk-e.I	F=50.242 R <sup>2</sup> (adjR <sup>2</sup> )=.165 (.161)				
step 3	.313	.067	.282	4.692	.000
risk*global	.343	.068	.301	5.018	.000
	F=40.091 R <sup>2</sup> (adjR <sup>2</sup> )=.240 (.234)				

분석결과를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독립변수 위험감수성은 매개변수인 글로벌역량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 $\beta = .402, t=7.216, p=.000$ ).
2. 독립변수 위험감수성은 종속변수인 창업의지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 $\beta = .451, t=7.088, p=.000$ ).
3. 독립변수 위험감수성이 통제된 상황에서 매개변수인 글로벌역량은 종속변수인 창업의지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 $\beta = .343, t=5.018, p=.000$ ).
4. 독립변수인 위험감수성의 직접효과는 총 효과보다 유의적으로 작다. 즉 2단계의 표준화된  $\beta$ 값 (.406)이 3단계의 독립변수의  $\beta$ 값 (.282)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모든 결과는 가설2를 지지하고 있다.

가설3 “자기효능감이 미치는 정(+)의 영향은 글로벌역량에 의해 매개 될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매개효과 검증 회귀 분석을 실시했다. 글로벌역량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의 절차에 따라 분석을 실시했다.

1. 독립변수 자기효능감은 매개변수인 글로벌역량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2. 독립변수 자기효능감은 종속변수인 창업의지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3. 독립변수 자기효능감이 통제된 상황에서 매개변수인 글로벌역량은 종속변수인 창업의지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4. 독립변수인 자기효능감의 직접효과는 총 효과보다 유의적으로 작은가?

분석의 결과는 <Table 6>에 제시하였으며 다음과 같다.

<Table 6> Mediation effect of global capac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 efficien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model	No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B	Stand&error	B		
step 1	.496	.058	.470	8.491	.000
self	F=103.941 R <sup>2</sup> (adjR <sup>2</sup> )=.290 (.287)				
step 2	.616	.065	.512	9.513	.000
self	F=60.574 R <sup>2</sup> (adjR <sup>2</sup> )=.192 (.189)				
step 3	.488	.071	.405	6.826	.000
self	.258	.068	.227	3.822	.000
global	F=39.729 R <sup>2</sup> (adjR <sup>2</sup> )=.238 (.232)				

1. 독립변수 자기효능감은 매개변수인 글로벌역량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 $\beta = .496, t=8.496, p=.000$ ).
2. 독립변수 자기효능감은 종속변수인 창업의지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 $\beta = .616, t=9.513, p=.000$ ).
3. 독립변수 자기효능감이 통제된 상황에서 매개변수인 글로벌역량은 종속변수인 창업의지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 $\beta = .258, t=3.822, p=.000$ ).
4. 독립변수인 자기효능감의 직접효과는 총 효과보다 유의적으로 작다. 즉 2단계의 표준화된  $\beta$ 값 (.512)이 3단계의 독립변수의  $\beta$ 값 (.405)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모든 결과는 가설3을 지지하고 있다.

## 5. 연구결과 및 논의

### 5.1 연구결과

본 연구는 개인특성이 글로벌역량을 매개로 창업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혀보고자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성취욕구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정(+)의 영향은 글로벌역량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성취 욕구는 글로벌역량과 창업의지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다. 성취욕구가 통제된 상황에서 글로벌역량은 창업의지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독립변수인 성취욕구의 직접효과는 총 효과보다 유의적으로 작으므로 이 모든 가설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감수성이 창업의지 미치는 정(+)의 영향은 글로벌역량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위험감수성은 글로벌역량과 창업의지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다. 위험감수성이 통제된 상황에서 글로벌역량은 창업의지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독립변수인 위험감수성의 직접효과는 총 효과보다 유의적으로 작으므로 이 모든 가설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정(+)의 영향은 글로벌역량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자기효능감은 글로벌역량과 창업의지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다. 자기효능감이 통제된 상황에서 글로벌역량은 창업의지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독립변수인 자기효능감의 직접효과는 총 효과보다 유의적으로 작으므로 이 모든 가설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자의 개인 특성이 창업 의지를 설명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서 지속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본 연구에서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한 요소로 주목하였던 글로벌역량은 높은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글로벌역량이 창업의지와 상당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 5.2 연구의 시사점 및 향후방향

본 연구는 앞으로 창업을 원하는 여러 예비창업자들에게 창업 성공 요소를 분석하여 창업의지를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개인특성이 글로벌역량의 매개를 통해 창업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연구 결과들을 통해 창업을 하고자하는 개인과 기존의 창업자들뿐 아니라 창업교육 담당자들에게도 기초자료로서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아가 앞으로의

창업 교육지원 정책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현 창업 정책 및 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게 하고 각 기관에서 창업자의 특성에 맞춘 정책이나 교육으로 각 개인의 능력 개발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방향에 관한 제언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인 일반인들의 직종, 직무를 분야별로 세분화하지 않고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분명 연구 대상자들의 창업의지 여부와 개인 환경 여건에서 차이가 날 것이다. 이러한 구분이 없이 불특정 다수를 포괄적으로 접근하여 분석했다는 것에 분명히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세부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 REFERENCES

- [1] Sun-Kyu Lee, Da-Jung Lee, Eun-Young Jang, Dong-Kook Choi, Kyu-Hwan Son,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Self-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ccording to Styles of Leadership”, The Korea Society of Digital Policy and Management, Vol. 8, No. 4, pp.109~121, 2010.
- [2] Hapero, A. & Sokol, L., “The social dimensions of entrepreneurship”, In C.A.Kent,D.L. Sexton, and K.H.Vesper(eds.),Encyclopedia of Entrepreneurship.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pp. 72~90, 1982.
- [3] Crant, J. M, “The proactive personality scale as a predictor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pp. 34~49, 1999.
- [4] Veciana, J. M, Aponte, M, & Urbano, D. “University students’attitudes towards entrepreneurship: A two countries comparison”,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 Management Journal,1, pp. 165~182. 2005.
- [5] Ji-Woo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private property & entrepreneurship will”. SME Research, 22 No. 1, pp. 121~146, 1999.
- [6] Krueger, N. “The impact of prior entrepreneurial exposure on perceptions of new venture feasibility and desirability”,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pp. 5~21, 1993.
- [7] Mi-ja Lee, Jung-gyu Kim, “The founding commitment



- and entrepreneurship impact on the start-up success”, The Korea Society of Digital Policy and Management, Vol. 11 No. 9, pp. 55~65, 2013.
- [8] Seong-jae Song, “Effect on job satisfaction rely on personal attributes this establishment”, Hanbat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Business Master’s Thesis establishment, 2014.
- [9] Dong-jin Kim, Tae-Seong Um, Gwan-in Byoun, “Will this impact on start-up vocational personality types of potential founders”, Eating out, cooking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the subject, Korea Culinary Research 15(1), pp. 67~78, 2009.
- [10] Bang-seop Youn, Established rely determinants: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al factors. 17(2), pp. 89~110, 2004.
- [11] Dong-ha Shin, “Study on the impact on the business performance factor of one person enterprises”, Hansung University, 2010.
- [12] Smith, N. R. & Miner, J. B., “Motivational considerations in the success of technologically innovative entrepreneurs”, Frontiers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Babson College, pp. 488~495, 1984.
- [13] Kiho Park, Yeon-Jeong Kim, “A Study on the Influence between Self-leadership Strategies and Learning Performance at IT Classes mediated by Attitude of Attendance: focused on the Social Science Students in University”, The Korea Society of Digital Policy and Management, Vol. 8, No. 4, pp. 1~17, 2010.
- [14] Krueger, N. The impact of prior entrepreneurial exposure on perceptions of new venture feasibility and desirability.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pp. 5~21, 1974.
- [15] Mansilla, Veronica Boix. & Jackson, Anthony, “Educating for Global, Competence: Preparing Our Youth to Engage the World”, Ed. Evan Omeroso. New York: Asia Society Press. 2011.
- [16] Jeong-hwa Han, “Korea Venture Business Internationalization Strategies and Challenges”,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Studies, pp. 85~101, 2002.
- [17] Dong-Ju Shin, Yen-Yoo You, “A Study on the Impact of Consultant’s competencies on Service Quality and Performance of Consulting”, The Korea Society of Digital Policy and Management, Vol. 10, No. 4, pp. 63-78, 2012.
- [18] Jeong-hwa Han, “Korea Venture Business Internationalization Strategies and Challenges”,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Studies, pp. 85~101, 2002.
- [19] Dong-seop Youn, Da-eu Joe,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Korea overseas ventures”,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No. 1 No. 18, pp. 29~58. 2007.
- [20] Caligiuri, P. & Santo, D. V. “Global competence: what is it, and can it be developed through global assignments?”, Human Resource Planning, 24(3), pp. 27~35, 2001.
- [21] So-yeon Park, Yeong-su Song, “The analysis for the global business competencies development (HRD) of the company’s global human resources -focusing on corporate and university recognition”, Workforce Development, 10(3), pp. 65~85, 2008.

이 루 리(Lee, Ru Ri)



- 2000년 2월 : 상지대학교 행정학 (학사)
- 2015년 2월 : 호서창업대학원 창업 컨설턴트(석사)
- 2015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정보경영학 박사과정 중
- 관심분야 : 일본어, 창업, 마케팅
- E-Mail : leeruri10004@gmail.com

이 소 영(Lee, So Young)



- 1984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학사)
- 1986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신문방송학(석사)
- 2011년 2월 : 고려대학교 경영학(박사)
- 관심분야 : 마케팅, CRM
- E-Mail : claire@hoseo.edu